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최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 옛날 주가 걸은 길, 나 오늘 걸겠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내일(17일)부터 금요일(21일)까지 교구별 좌석
성금요일(21일), 천교인 1일 금식·특별집회 및 제3차 성찬식(저녁 7시)
다음 주일(23일), 부활주일·특별찬양(찬양예배 시)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믿지 않는(불신앙의) 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요 3:17)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전통 중의 하나는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 향하신 그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오래 전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요 3:18)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엡 2:1-2, 12-13)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와 실수, 행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하나님을 행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막 3:28-29) 복음을 들어 알면서도 교만하여 이를 배척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무서운 범죄이다. 우리들이 범하는 대부분의 죄는 직접적으로 인간을 향해 범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인 구원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인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것이다.(롬 1:21-23; 시 61:4)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이나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죄는 가장 기만적인 죄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요 3:19-21)하신 것을 이들이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노골적으로 내어 놓고 믿지 않는 것과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다. 노골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나,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는 부모들 때문일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부인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다. 또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불신앙 중에는 지적인 면에 근거한 것도 있다.(마 20:24) 이들은 기독교에는 믿을 만

한 확실한 증거나 신앙성도 없어서 믿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창 2:22)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인 교만 때문에 불신앙의 죄에 빠질 뿐이다.

노골적인 불신앙과는 다른 가장한(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감추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사랑하고 야방인은 미워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메시아가 분명히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믿음은 저절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 우리들 역시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계속해서 배척한다.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사 64:6)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도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요 14:6)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계신다.(요 5:24)

*이반 주 회교도집회, 수요일성경무, 금요구역예배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에는 이미 자신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 이 자유와 용서는 오직 죄인으로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여 준다. 새로이 다시 탄생할 수 있고 새로운 심령이 된다. 이것이 곧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고후 5:17) 그러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거절하여 주시는 자비를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은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라는 단어는 참으로 두려운 말이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믿음이 없는 자였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불신앙인이요, 하나님께 이미 저주를 받은 자였다. 신약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가? 오직 예수님을 믿자! 아멘.

예수님이 겔오신
십자가 길의
마지막 일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종교개혁 · 개신 예수님 탄생(마 21:1~9, 막 11:1~11, 요 19:29~40, 요 12:1~9) 무리의 반향과 예수님 유생(마 19:41~44)

월요일 · 권위 무죄재판후를 저주(마 21:18~19, 막 11:12~14) 성전 사건을 통한 성전의 종식을 고백(마 21:12~17, 막

11:15~19, 막 19:45~48, 요 2:13~22)
화요일 · 변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마 21:23~27, 막 20:1~8) 절의 세 가지 비유(마 21:28~32, 33~46, 마 22:1~14) 지도자들과 논쟁(마 22:41, 막 20:41~44) 예수님들 분리의 대한 경고(마 24:25, 마 13:8, 막 21:5~38)

수요일 · 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마 26:3~5, 막 14:1~2, 눅 22:1~2) 유대인의 반역(마 26:14~16, 막 14:10~11)

목요일 · 준비 유월절 사제(마 26:17~25, 요 13:1~7) 최후의 성만찬(마 26:26~29, 막 14:22~25) 예수님의 종교기도와 고백(눅 13:31~35, 요 17:8)

금요일 · 수난 배반과 고백(마 26:30~36, 막 14:26~32) 골골의 아들 예수(마 26:37~46, 막 14:32~42)

토요일 · 예비 무죄를 지킴(마 27:62~66,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부활주일 · 부활 주를 만난 자들의 간증(사 40:3~5) 마지막 정경(마 28:1) 예수님의 부활(마 28:1, 막 16:1, 눅 24:1, 요 20:2)

27:31~33, 막 15:20~46, 막 23:26~34)

JESUS IS STILL ALIVE

(5)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has been crucified.

(6)“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He was lying.”

(Matthew 28:5~6)

For a little more than thirty-three years, Jesus Christ walked the way of the world, exactly like you and I do now, yet He was never contaminated by its sins. During His three years of public ministry, He gave sight to the blind, made the lame walk, cleansed lepers, made the deaf hear, raised the dead,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 poor. (Mt. 11:5) He did nothing but good, which makes His crucifixion the darkest and saddest day in our world's history. No one comes close to delivering God's Word in such a noble and perfect way. He truly practiced what He preached, unlike the majority of today's preachers. His earthly life was a lot like the sunshine, only more so, in that He gave others encouragement, hope, and eternal life. He made it possible for this sinful and dark world to actually receive heavenly light,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Even though Jesus Christ did everything right, His people still crucified Him. They berated Him, humiliated Him, beat Him, and finally nailed Him to a cross. They thought they could silence Him forever. Jesus warned His disciples and the crowds about their sinful religious officials,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have seated themselves in the chair of Moses; therefore all that they tell you, do and observe, but do not do according to their deeds; for they say things and do not do them." (Mt. 23:2~3) He even rebuked the scribes and Pharisees,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because you travel around on sea and land to make one proselyte; and when he becomes one, you make him twice as much a son of hell as yourselves." (Mt. 23:15) These teachers of the law and their followers, whom we call the Israelites, never practiced their faith. They were blind and could not see Jesus as Messiah. They did not know the Son of God, and missed out on something very big. Nonetheless, God used their blindness to carry out His salvation plan. It was God's purpose to give His only begotten Son as atonement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His chosen people carried out His eternal purpose.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He is still alive! God raised Him up over 2,000 years ago, and He was, is, and will forever be our Lord God. Colossians 1:19~20 says, "For it was the Father'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rough Him, I say,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Is not that exciting news? Can you believe that Jesus has "now reconciled you in His fleshly body through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Him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ol. 1:22) His followers mourned His death. Jesus was their hope and Savior. They thought He returned to the soil, so their dreams were shattered and their heart's love crushed, but after the Sabbath, as it began to dawn toward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conquered death! The angel told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v. 6)

Even though Jesus is eternally alive, He is still with us always. He told His eleven disciple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Amen. Jesus is alive in our needs and troubles. The Christian life is no bed of roses, and many suffer great difficulties.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s that when believers go down into the valley, they do not go alone. Jesus is with them all the way. He reminds us,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Jesus is alive in our prayers,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4) Jesus is alive in our spirits,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n. 14:17) Jesus is alive in our hearts. Paul declar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Gal. 2:20)

My dear friends, Easter is a wonderful, wonderful event. To know that Jesus is still alive is good news. Do you believe it? Jesus said,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Rev. 22:13) He is God forever. As you deny yourself, taking your cross to follow Him, please know that He is with you. Wherever you are in the practice of your faith, He is there also. He will never fail you. You will always find success in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which are yours for the taking. Let us praise the Lord. He is alive, and will be with us forever. Amen. 🙏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5~6)**



김성관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대략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 의해 결코 오염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기간 중에 백인들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건네 하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마 11:5) 예수님은 선한 일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선한 일이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아등고등도 슬픈 날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그와 같은 고귀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따뜻한 햇볕과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늘의 밝은 빛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록, 예수님이 선한 일만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예수님을 잠잠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에게 악한 종교지도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마 23:2~3) 예수님은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극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5)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믿음을 실천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보았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먼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구원계획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여 구원계획을 실행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2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19~20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

니”(골 1:22)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요 구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흠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은 갈기 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6절)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더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고난의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외로이 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 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아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계 22:13)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는 모든 현장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맺히지는 성령의 열매 안에서 여러분은 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3. 12.)

나를 부인하면 (마태복음 26:69~75)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초대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의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선봉에 베드로가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행 2:14~42) 자칫 말을 잘못하다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는 힘입어 이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겁쟁이었다. 무려 세 번씩이나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마 26:74~75; 막 14:71~72; 눅 22:60~62; 요 18:26~27) 한 때 베드로는 가장 귀한 신앙고백(마 16:17~18)을 하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 철저히 실패했다.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마 26:72) 베드로는 실패자였다. 물론 그는 실패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다. 죽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믿음의 각오도 있었다. (마 26:31, 33~35) 그러나 열정적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깨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자신의 열정과 힘,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이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다. 믿음의 대상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 한걸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마 10:1~4) 이윽고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셨다. (마 10:5~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을 부탁하셨고, 복음전파사역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가

르쳐주셨다. (마 10:8~23)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힘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10:24~31)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을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참 제자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베드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막 10:33~34)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베드로는 실패자였다.

주님은 용서받지 못할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이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 때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다. (마 10:2~4)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셨다. (막 16:7) 뿐만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로 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 (요 21:15)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요 21:22)고 강조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실로 사랑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진실로 회개하였다. (마 26:75) 회개하였던 베드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 (고후 7:10)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받지 못할 베드로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었다.

베드로의 실패는?

초대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우리의 똑같이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이었다. (마 26:26~28)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패자였다. (마 26:69, 71, 73)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힌이 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한다. 자신이 무언가 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외식의 옷을 입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 내려는 죄를 범한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베드로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이다. 우리는 진실로 죄인 중의 괴수이다. (딤후 1:15)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선한 것을 찾기 힘들다. 나의 삶에 나의 혼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의 고백을 실천해야 한다. “사라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로다”(롬 14:8) 예수님이 가신 길은 멸시와 고통, 죽음의 길이었지만 이 길은 영혼사랑의 길이었으며 참 생명의 길이였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걷는 은총의 자녀가 되자.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주 뉘 위해 항상 비시네.”(찬 290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18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의 가족 (3:31-35)

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지도자들을 무척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막 3:20~21, 31~32)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 (눅 1:45)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차 그녀의 믿음은 변했다. (눅 2:49) 다른 유대인처럼 죄를 구할 뿐이었다. (요 2:3~5) 결국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들과 함께 권위있는 종교지도자들의 집에 주눅이 들어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 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자 그의 믿음은 변했다. (눅 7:19) 마리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막 3:33) 이것은 자신을 찾아 온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에는 두 세대의 비움이 담겨 있다. 육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의 아들이며, 친족들이 있다. (마 12:46~47; 요 19:26~27)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족도 아니다. 어떤 친족들의 골때리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가족의 모습이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벧전 1:21; 마 3:34~35)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만 되풀이했다. 이런 불순종의 고리를 끊자. 모든 의식을 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자. (눅 3:8; 요 8:39)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요 1:12)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보혈로 거듭난 은총의 자녀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롬 8:17)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겪어야 할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믿음을 포기한다.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 “그르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요 하겠느니라”(고후 6:17~18) 세상과의 타협은 곧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인들의 죄는 속량받았다.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 4:5~6)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가족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가족은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을 예수님은 원하셨다. (엡 2:18~19)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은 출발한다. (히 2:11) 우리 가족의 믿음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롬 12:2)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 (요 6:29,40)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 종교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압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족이 되자.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중등부 1팀 · 2팀

❖ 처음에 선교가 재미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선교를 하다 보니 선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니 선교가 더욱더 즐거웠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따라오는 모습이 신기했다. 마치 주님이 그 아이들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끄시는 것 같았다. (배성오)

❖ 솔직히 조금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랬더니 정말 사역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놀라웠다. 전도지를 나눠 주면 서로 전도지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울컥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죽어 결국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안타까웠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김한별)

❖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점점 더 자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정은혜)

❖ 마을에서 사람들이 뒷말로 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영접기도를 잘 따라왔다. 주님께 감

사할 뿐이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음을 새삼 느꼈다. (신철민)

❖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 용기가 생겼다. 땀이 나도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내가 힘든 것보다, 죽고 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영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한나)

❖ 선교를 하면서 마귀가 많이 해방을 놓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도와 주고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느라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 같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이 넘쳐났다. (임원희)

❖ 파가온 햇볕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너무 기뻐다. 또 바쁜 와중에도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멈추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셨다. (손다문)

❖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이름이 스마일이었다. 그 아이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지만 간절히 기도했다. 결국 그 가족은 모두 “아멘.”을 외쳤다. (한성민)

❖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우상들을 보았고, 많은 영혼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나라에도 주님의 교회와 세워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임혜빈)

❖ 초등학교 앞에서 1,2학년 좀 뛰어 보이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전도지를 달라고 손을 뻗었을 땐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나 좀 살려 달라!”고 손을 뻗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조아라)

❖ 처음 출발할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자면 마음 하나만을 안고 떠났다. 막상 사역지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대보다 훨씬 편했고, 음식도 입에 잘 맞았다. 열려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임희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6일(목) ~ 3월 14일(금)	21교구 1지역	이영식

첫 선교에서 주신 큰 은혜

하나님께서 “너 선교까지 않을래?”하고 물으셨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걸음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한 선교였다. 주님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하였고, 그 곳에서 마치 우리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선교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 번은 공안에게 잡혀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숨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전도하는 이방 나라의 선교사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집에서 영접기도까지 마친 아이들이 친구 집까지 따라가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왜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정에서 가발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다음 날 다시 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어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영접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경험하였다. 비록 가발은 잃어버렸지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그 사람이 너무나 놀라웠다.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이 아니었다면 첫 선교였던 나에게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을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겸허하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선교는 자기 부인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단기선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선교 준비 모임에 처음 참석하던 날부터 이미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탄을 필두로 하는 세상의 방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도행전 통독과 기도와 경건회를 통하여 저희 팀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를 통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꼈으며,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역 첫날 아침 경건회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시 126:5)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역 속에서 직접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의 결실을 꼭 우리가 다시 거둘 필요가 없다는 감사의 자유함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다른 선교사들이 심었던 십자가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잘 뿌리내려 자라남을 보게 하였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음”에 모든 팀원들은 크게 감동을 받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9~14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깨어 있어 모든 권권을 주님께 맡기고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시작으로 바라보게 하시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순종히 여기며 순종으로 걷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행보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 수 있었습니다.

허용우(집사, 청년부 2팀)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과 종교관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저는 주일예배에만 참석할 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을 흔들어놓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비교적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이후 나를 구원하신 회복된 믿음으로 나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억지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릴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거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한다면 끝물같은 믿음의 성장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삼킴이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흥해를 건너야 하고 예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장대한 아나 자손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를 향해 대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허은숙(권사, 15교구)

내 안의 적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식구들에게도 확인 전화를 하였고, 착한 딸도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할 하니……’ 부끄럽지만 일찍 교회에 도착하면서 스스로에게 보내던 박수 소리입니다. 감추었던 내 안의 적들은 늘 이런 모습으로 나를 포경하였고 주님의 선한 군사로 훈련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교회 주차장에는 벌써부터 콧 찬 차량들과 불쾌한 몸매 이글고 뿜어 늦을새라 발길을 재촉하는 성도님들, 곳곳에서 소리 없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보면서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출석표를 책자에 끼우며 안내를 준비하던 중에 “불의함과 섞여 있는 교회는 적그리스도이고 비신자”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작군은 성도들을 압박하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문화나 예의와 전통을 고수하려 애썼던 제 자신이 비신자였고, 적군이었습니다. 내가 감추고 포장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안내를 담당하는 사이사이에 들리는 찬양과 말씀 중에서 “주께서 먼저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비 진리와 늘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군사”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패 안에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앞으로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 주여 허락 하소서. 사랑의 주여 저비 베푸소서. 아멘.”

정미언(집사, 16교구)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삼킴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한 채 나 자신은 “참 더러운 자, 즐거자, 아니 참 더 고민하자, 절망하자.”라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불붙고 회피이 애쓰며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오렌 슬픈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훈련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자를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 주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기쁘게도 하나 고통할 일도 반드시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고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끌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비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임혜연(집사, 10교구)

눈물의 복음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오가면서 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고 낙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 달라고 밤마다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나는 늘 내 기도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고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사랑의 주님은 나를 충현교회로 인도하셨다.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이전 예배당에 들어설 때면 손수건부터 챙긴다. ‘왜 그리도 눈물이 나는지!’ 충현교회에 와서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자녀인 나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잘못된 생각과 죄를 회개하는 생활로 변화했다. 가장 중요한 구원과 회개와 십자가만을 강조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위임목사님!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낙약함을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또 거짓과 위수가 되어야 함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항상 악의 영과 싸워야 함에도 싸움을 쉬며 불의함을 보고도 참는 우리들을 보면서 위임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 없는 것 같다. “주님! 오직 말씀 중심, 찬양 중심,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신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형경(집사, 2교구)

바디매오가 눈을 뜬 것처럼

이번 2008년 제1차 청지기훈련은 어느 해보다 특별했다. 나에게 변화의 물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하면서 구역식구와 가족들을 권면하는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게 하셨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동안 청지기훈련을 의무로 행사로만 여기고 참여했던 이 죄인을 주님은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 12:42)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청지기훈련에 주님은 남편을 예비해 주셨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교회 갈 것을 권면했을 때 가리급 없이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워서 “정말?”이라며 되물었고 남편은 환한 얼굴로 웃어 주었다.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갈 생각에 아침부터 들떠 있으면서도 과연 ‘남편이 2시간 동안 참고 앉아서 말씀과 찬양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라는 말씀을 새겨서 교회로 향했다. 3층에 위임목사님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였다.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바디매오가 눈을 뜬 것처럼 남편도 영의 눈이 뜨이기를 기도했다. “주님,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명자(집사, 11교구)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획위원회



원울최(장로, 기획위원장)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파기를 잡으리라'(민 20:9) 이 믿음의 순종이 기획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의 고백과 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며 주신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의 5대 목표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하여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나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5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잘 진행 되도록 기획위원회 일꾼들은 더욱 힘써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것입니다.

기획위원회는 현재 교회가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시설들이 복음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운영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수양관의 운영체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양로원과 남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안도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모든 운영체계가 주님의 뜻대로 계획되고 준비되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한 시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획위원회 일꾼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을 가로막는 악한 사탄의 계개와 술수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어떤 반대나 이견 없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기획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마 17:8) 이면.

선임 고역자 소개

2008년 3월 4일부터, 새 본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윤요한 목사
(1970. 4. 24.)
유연회 사모 외 3남



김근엽 목사
(1971. 7. 7.)
이냐는 사모 외 2남



박준식 목사
(1972. 6. 24.)
방은혜 사모 외 1남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설레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하고 절망이 겹쳐 들어오니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천하 출려 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심이 그저 감사하기에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갓이 빠른 세월 따라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쉬어 하시니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연령에 제한 없이 예수살렘 찬양대에 가입하라는 '주간충원' 광고를 보고 놀라움과 기대가 함께 있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과연 찬양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살렘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살렘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배에 대한 기대와 은혜로 모든 예배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설레이 생겼습니다. 특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이전보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속속 잘 들어옵니다. 또한 이 나이에 찬양가사를 암송하는 게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도 주님은 저에게 청년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앉으나 서나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고, 찬양이 떠오르도록 머리에 입력하고 찬양가사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만끽하며 노래하고 연습했습니다. "나 언제 보리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울며 새 기쁨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은 때를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검줄을 이루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소망과 기쁨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신영호(은퇴신자, 예루살렘 찬양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96	황인희	5	청년1부	황윤재(4)	423	한경진	4	소망부	이정애(20)
397	박노정	19	청년1부	이영애(20)	424	나동호	7	청년2부	한용태(7)
398	김라철	11	청년2부	김은실(7)	425	김상철	15	청년1부	김재선(11)
399	박경철	21	청년2부	김호선(11)	426	이성구	19	청년1부	이유미(6)
400	김대권	18	청년1부	황방자(4)	427	조종민	11	청년1부	김영환(18)
401	이재원	9	대학부	황옥영(9)	428	김대현	11	소망부	김연희(11)
402	오승은	2	청년2부	김명희(4)	429	이준영	3	대학부	
403	홍미숙	6	청년1부	박은석(9)	430	박한나	3	소년부	
404	이홍순	11	청년1부	정성재(21)	431	박진식	1	교역자	
405	손석원	8	청년1부		432	방은혜	1	청년2부	
406	최홍수	4	청년2부	홍은기(4)	433	한종국	5	청년1부	한종원(7)
407	이태성	22	종동1부	조준명(22)	434	정종현	7	고등부	이미애(5)
408	강수영	21	청년2부	강승희(18)	435	신재욱	8	청년1부	최상기(24)
409	박재용	22	청년2부	전성영(9)	436	권혁미	8	청년1부	최상기(24)
410	신은재	13	소년부		437	이영지	24	청년3부	강영지(24)
411	신혜인	13	소년부		438	박승민	6	청년1부	김화선(2)
412	김근영	1	교역자		439	김재경	5	청년1부	김화선(2)
413	이하나	1	청년2부		440	김도희	3	고등부	김하은(13)
414	김예준	1	유치부		441	김민서	18	소년부	양미옥(18)
415	박은비	12	대학부	이슬미(22)	442	숙트	25	외선부	양은옥(1)
416	김영목	2	고등부	홍준길(2)	443	홍경애	17	청년2부	이숙희(18)
417	윤오환	1	교역자		444	가이	25	외선부	김은남(10)
418	유은희	1	청년2부		445	한 현	7	청년2부	이정희(7)
419	윤희원	1	초등부		446	나은수	7	유년1부	이정희(7)
420	서혜원	11	청년1부	박순희(12)	447	성영은	13	청년3부	정경숙(2)
421	이은지	12	대학부	이수연(23)	448	장지환	4	청년1부	임길영(2)
422	이성실	4	소망부	이정애(20)	449	전동필	18	청년3부	

* 순종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권사 3·4지회 월례회
일시: 19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결혼

1. 박성하 군(박춘식 장로·김규연 권사의 아들, 타교)과 이예인 양(이영호 성도·김기연 성도의 딸, 2교구) / 22일(토) 12:40, 안동 신라예식장
2. 최충현 군(최승민 성도·장금순 집사의 아들, 13교구)와 정진희 양(정자학 집사·김종리 집사의 딸, 타교) / 22일(토) 17:00, 혜동의전당 그랜드홀
3. 남태준 군(남용우 씨·정혜영 씨의 아들, 타교)과 정지영 양(정희희 성도·금민숙 권장의 딸, 3교구) / 22일(토) 17:00, 위귀힐호텔 에스본하우스

별세

1. 남이현 성도(이양호 집사의 남편, 2교구 한시 2배우) / 9일 별세, 11일 장례
2. 임말배 성도(이영자 집사의 시모, 11교구 외 정부 3배우) / 10일 별세, 12일 장례

◆21교구 새신자 초청 전도집회

일 시: 3월 16일(오늘) 14:00
장 소: 갈릴리움

◆CMTC 직무훈련

일 시: 3월 29일(토) 14:00~17:00
장 소: 갈릴리움

◆2008년 상반기 수화교실

일 시: 3월 9일~6월 22일(매주 2주) 매주 일 15:10~16:30
장 소: 제2교관 1층 에비다부실

볼맞이 교회 환경정리

일 시: 3월 29일(토) 9:00~12:00
방 법: 모든 성도들이 각 교구에 할당된 구역에서 환경정리를 한다.
◆교회구역: 각 교구에 필요한 청소도구 직접 준비하여 실행한다.
◆회단구역: 각 교구에 임명된 담임목사 조경담당자를 중심으로 회단을 정리하고 세 불을 맞이하여 담임교구의 회단을 각 교구의 회단 특성에 맞게 가꾸도록 한다.
문 의: 봉사위원회 자원봉사부 (#363, 421)

【2008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수요성경공부
- 오후반 23:00 ~ 4:00
교과(2) 3월 12일 ~ 5월 28일(12주)
레위기 1~4, 19~21, 24~25, 27~28, 30~31, 33~34, 36~37, 39~40, 42~43, 45~46, 48~49, 51~52, 54~55, 57~58, 60~61, 63~64, 66~67, 69~70, 72~73, 75~76, 78~79, 81~82, 84~85, 87~88, 90~91, 93~94, 96~97, 99~100, 102~103, 105~106, 108~109, 111~112, 114~115, 117~118, 120~121, 123~124, 126~127, 129~130, 132~133, 135~136, 138~139, 141~142, 144~145, 147~148, 150~151, 153~154, 156~157, 159~160, 162~163, 165~166, 168~169, 171~172, 174~175, 177~178, 180~181, 183~184, 186~187, 189~190, 192~193, 195~196, 198~199, 201~202, 204~205, 207~208, 210~211, 213~214, 216~217, 219~220, 222~223, 225~226, 228~229, 231~232, 234~235, 237~238, 240~241, 243~244, 246~247, 249~250, 252~253, 255~256, 258~259, 261~262, 264~265, 267~268, 270~271, 273~274, 276~277, 279~280, 282~283, 285~286, 288~289, 291~292, 294~295, 297~298, 300~301, 303~304, 306~307, 309~310, 312~313, 315~316, 318~319, 321~322, 324~325, 327~328, 330~331, 333~334, 336~337, 339~340, 342~343, 345~346, 348~349, 351~352, 354~355, 357~358, 360~361, 363~364, 366~367, 369~370, 372~373, 375~376, 378~379, 381~382, 384~385, 387~388, 390~391, 393~394, 396~397, 399~400, 402~403, 405~406, 408~409, 411~412, 414~415, 417~418, 420~421, 423~424, 426~427, 429~430, 432~433, 435~436, 438~439, 441~442, 444~445, 447~448, 450~451, 453~454, 456~457, 459~460, 462~463, 465~466, 468~469, 471~472, 474~475, 477~478, 480~481, 483~484, 486~487, 489~490, 492~493, 495~496, 498~499, 501~502, 504~505, 507~508, 510~511, 513~514, 516~517, 519~520, 522~523, 525~526, 528~529, 531~532, 534~535, 537~538, 540~541, 543~544, 546~547, 549~550, 552~553, 555~556, 558~559, 561~562, 564~565, 567~568, 570~571, 573~574, 576~577, 579~580, 582~583, 585~586, 588~589, 591~592, 594~595, 597~598, 600~601, 603~604, 606~607, 609~610, 612~613, 615~616, 618~619, 621~622, 624~625, 627~628, 630~631, 633~634, 636~637, 639~640, 642~643, 645~646, 648~649, 651~652, 654~655, 657~658, 660~661, 663~664, 666~667, 669~670, 672~673, 675~676, 678~679, 681~682, 684~685, 687~688, 690~691, 693~694, 696~697, 699~700, 702~703, 705~706, 708~709, 711~712, 714~715, 717~718, 720~721, 723~724, 726~727, 729~730, 732~733, 735~736, 738~739, 741~742, 744~745, 747~748, 750~751, 753~754, 756~757, 759~760, 762~763, 765~766, 768~769, 771~772, 774~775, 777~778, 780~781, 783~784, 786~787, 789~790, 792~793, 795~796, 798~799, 801~802, 804~805, 807~808, 810~811, 813~814, 816~817, 819~820, 822~823, 825~826, 828~829, 831~832, 834~835, 837~838, 840~841, 843~844, 846~847, 849~850, 852~853, 855~856, 858~859, 861~862, 864~865, 867~868, 870~871, 873~874, 876~877, 879~880, 882~883, 885~886, 888~889, 891~892, 894~895, 897~898, 900~901, 903~904, 906~907, 909~910, 912~913, 915~916, 918~919, 921~922, 924~925, 927~928, 930~931, 933~934, 936~937, 939~940, 942~943, 945~946, 948~949, 951~952, 954~955, 957~958, 960~961, 963~964, 966~967, 969~970, 972~973, 975~976, 978~979, 981~982, 984~985, 987~988, 990~991, 993~994, 996~997, 999~1000, 1002~1003, 1005~1006, 1008~1009, 1011~1012, 1014~1015, 1017~1018, 1020~1021, 1023~1024, 1026~1027, 1029~1030, 1032~1033, 1035~1036, 1038~1039, 1041~1042, 1044~1045, 1047~1048, 1050~1051, 1053~1054, 1056~1057, 1059~1060, 1062~1063, 1065~1066, 1068~1069, 1071~1072, 1074~1075, 1077~1078, 1080~1081, 1083~1084, 1086~1087, 1089~1090, 1092~1093, 1095~1096, 1098~1099, 1101~1102, 1104~1105, 1107~1108, 1110~1111, 1113~1114, 1116~1117, 1119~1120, 1122~1123, 1125~1126, 1128~1129, 1131~1132, 1134~1135, 1137~1138, 1140~1141, 1143~1144, 1146~1147, 1149~1150, 1152~1153, 1155~1156, 1158~1159, 1161~1162, 1164~1165, 1167~1168, 1170~1171, 1173~1174, 1176~1177, 1179~1180, 1182~1183, 1185~1186, 1188~1189, 1191~1192, 1194~1195, 1197~1198, 1199~1200, 1202~1203, 1205~1206, 1208~1209, 1211~1212, 1214~1215, 1217~1218, 1220~1221, 1223~1224, 1226~1227, 1229~1230, 1232~1233, 1235~1236, 1238~1239, 1241~1242, 1244~1245, 1247~1248, 1250~1251, 1253~1254, 1256~1257, 1259~1260, 1262~1263, 1265~1266, 1268~1269, 1271~1272, 1274~1275, 1277~1278, 1280~1281, 1283~1284, 1286~1287, 1289~1290, 1292~1293, 1295~1296, 1298~1299, 1301~1302, 1304~1305, 1307~1308, 1310~1311, 1313~1314, 1316~1317, 1319~1320, 1322~1323, 1325~1326, 1328~1329, 1331~1332, 1334~1335, 1337~1338, 1340~1341, 1343~1344, 1346~1347, 1349~1350, 1352~1353, 1355~1356, 1358~1359, 1361~1362, 1364~1365, 1367~1368, 1370~1371, 1373~1374, 1376~1377, 1379~1380, 1382~1383, 1385~1386, 1388~1389, 1391~1392, 1394~1395, 1397~1398, 1400~1401, 1403~1404, 1406~1407, 1409~1410, 1412~1413, 1415~1416, 1418~1419, 1421~1422, 1424~1425, 1427~1428, 1430~1431, 1433~1434, 1436~1437, 1439~1440, 1442~1443, 1445~1446, 1448~1449, 1451~1452, 1454~1455, 1457~1458, 1460~1461, 1463~1464, 1466~1467, 1469~1470, 1472~1473, 1475~1476, 1478~1479, 1481~1482, 1484~1485, 1487~1488, 1490~1491, 1493~1494, 1496~1497, 1499~1500, 1502~1503, 1505~1506, 1508~1509, 1511~1512, 1514~1515, 1517~1518, 1520~1521, 1523~1524, 1526~1527, 1529~1530, 1532~1533, 1535~1536, 1538~1539, 1541~1542, 1544~1545, 1547~1548, 1550~1551, 1553~1554, 1556~1557, 1559~1560, 1562~1563, 1565~1566, 1568~1569, 1571~1572, 1574~1575, 1577~1578, 1580~1581, 1583~1584, 1586~1587, 1589~1590, 1592~1593, 1595~1596, 1598~1599, 1601~1602, 1604~1605, 1607~1608, 1610~1611, 1613~1614, 1616~1617, 1619~1620, 1622~1623, 1625~1626, 1628~1629, 1631~1632, 1634~1635, 1637~1638, 1640~1641, 1643~1644, 1646~1647, 1649~1650, 1652~1653, 1655~1656, 1658~1659, 1661~1662, 1664~1665, 1667~1668, 1670~1671, 1673~1674, 1676~1677, 1679~1680, 1682~1683, 1685~1686, 1688~1689, 1691~1692, 1694~1695, 1697~1698, 1700~1701, 1703~1704, 1706~1707, 1709~1710, 1712~1713, 1715~1716, 1718~1719, 1721~1722, 1724~1725, 1727~1728, 1730~1731, 1733~1734, 1736~1737, 1739~1740, 1742~1743, 1745~1746, 1748~1749, 1751~1752, 1754~1755, 1757~1758, 1760~1761, 1763~1764, 1766~1767, 1769~1770, 1772~1773, 1775~1776, 1778~1779, 1781~1782, 1784~1785, 1787~1788, 1790~1791, 1793~1794, 1796~1797, 1799~1800, 1802~1803, 1805~1806, 1808~1809, 1811~1812, 1814~1815, 1817~1818, 1820~1821, 1823~1824, 1826~1827, 1829~1830, 1832~1833, 1835~1836, 1838~1839, 1841~1842, 1844~1845, 1847~1848, 1850~1851, 1853~1854, 1856~1857, 1859~1860, 1862~1863, 1865~1866, 1868~1869, 1871~1872, 1874~1875, 1877~1878, 1880~1881, 1883~1884, 1886~1887, 1889~1890, 1892~1893, 1895~1896, 1898~1899, 1901~1902, 1904~1905, 1907~1908, 1910~1911, 1913~1914, 1916~1917, 1919~1920, 1922~1923, 1925~1926, 1928~1929, 1931~1932, 1934~1935, 1937~1938, 1940~1941, 1943~1944, 1946~1947, 1949~1950, 1952~1953, 1955~1956, 1958~1959, 1961~1962, 1964~1965, 1967~1968, 1970~1971, 1973~1974, 1976~1977, 1979~1980, 1982~1983, 1985~1986, 1988~1989, 1991~1992, 1994~1995, 1997~1998, 1999~2000, 2002~2003, 2005~2006, 2008~2009, 2011~2012, 2014~2015, 2017~2018, 2020~2021, 2023~2024, 2026~2027, 2029~2030, 2032~2033, 2035~2036, 2038~2039, 2041~2042, 2044~2045, 2047~2048, 2050~2051, 2053~2054, 2056~2057, 2059~2060, 2062~2063, 2065~2066, 2068~2069, 2071~2072, 2074~2075, 2077~2078, 2080~2081, 2083~2084, 2086~2087, 2089~2090, 2092~2093, 2095~2096, 2098~2099, 2101~2102, 2104~2105, 2107~2108, 2110~2111, 2113~2114, 2116~2117, 2119~2120, 2122~2123, 2125~2126, 2128~2129, 2131~2132, 2134~2135, 2137~2138, 2140~2141, 2143~2144, 2146~2147, 2149~2150, 2152~2153, 2155~2156, 2158~2159, 2161~2162, 2164~2165, 2167~2168, 2170~2171, 2173~2174, 2176~2177, 2179~2180, 2182~2183, 2185~2186, 2188~2189, 2191~2192, 2194~2195, 2197~2198, 2200~2201, 2203~2204, 2206~2207, 2209~2210, 2212~2213, 2215~2216, 2218~2219, 2221~2222, 2224~2225, 2227~2228, 2230~2231, 2233~2234, 2236~2237, 2239~2240, 2242~2243, 2245~2246, 2248~2249, 2251~2252, 2254~2255, 2257~2258, 2260~2261, 2263~2264, 2266~2267, 2269~2270, 2272~2273, 2275~2276, 2278~2279, 2281~2282, 2284~2285, 2287~2288, 2290~2291, 2293~2294, 2296~2297, 2299~2300, 2302~2303, 2305~2306, 2308~2309, 2311~2312, 2314~2315, 2317~2318, 2320~2321, 2323~2324, 2326~2327, 2329~2330, 2332~2333, 2335~2336, 2338~2339, 2341~2342, 2344~2345, 2347~2348, 2350~2351, 2353~2354, 2356~2357, 2359~2360, 2362~2363, 2365~2366, 2368~2369, 2371~2372, 2374~2375, 2377~2378, 2380~2381, 2383~2384, 2386~2387, 2389~2390, 2392~2393, 2395~2396, 2398~2399, 2401~2402, 2404~2405, 2407~2408, 2410~2411, 2413~2414, 2416~2417, 2419~2420, 2422~2423, 2425~2426, 2428~2429, 2431~2432, 2434~2435, 2437~2438, 2440~2441, 2443~2444, 2446~2447, 2449~2450, 2452~2453, 2455~2456, 2458~2459, 2461~2462, 2464~2465, 2467~2468, 2470~2471, 2473~2474, 2476~2477, 2479~2480, 2482~2483, 2485~2486, 2488~2489, 2491~2492, 2494~2495, 2497~2498, 2500~2501, 2503~2504, 2506~2507, 2509~2510, 2512~2513, 2515~2516, 2518~2519, 2521~2522, 2524~2525, 2527~2528, 2530~2531, 2533~2534, 2536~2537, 2539~2540, 2542~2543, 2545~2546, 2548~2549, 2551~2552, 2554~2555, 2557~2558, 2560~2561, 2563~2564, 2566~2567, 2569~2570, 2572~2573, 2575~2576, 2578~2579, 2581~2582, 2584~2585, 2587~2588, 2590~2591, 2593~2594, 2596~2597, 2599~2600, 2602~2603, 2605~2606, 2608~2609, 2611~2612, 2614~2615, 2617~2618, 2620~2621, 2623~2624, 2626~2627, 2629~2630, 2632~2633, 2635~2636, 2638~2639, 2641~2642, 2644~2645, 2647~2648, 2650~2651, 2653~2654, 2656~2657, 2659~2660, 2662~2663, 2665~2666, 2668~2669, 2671~2672, 2674~2675, 2677~2678, 2680~2681, 2683~2684, 2686~2687, 2689~2690, 2692~2693, 2695~2696, 2698~2699, 2701~2702, 2704~2705, 2707~2708, 2710~2711, 2713~2714, 2716~2717, 2719~2720, 2722~2723, 2725~2726, 2728~2729, 2731~2732, 2734~2735, 2737~2738, 2740~2741, 2743~2744, 2746~2747, 2749~2750, 2752~2753, 2755~2756, 2758~2759, 2761~2762, 2764~2765, 2767~2768, 2770~2771, 2773~2774, 2776~2777, 2779~2780, 2782~2783, 2785~2786, 2788~2789, 2791~2792, 2794~2795, 2797~2798, 2800~2801, 2803~2804, 2806~2807, 2809~2810, 2812~2813, 2815~2816, 2818~2819, 2821~2822, 2824~2825, 2827~2828, 2830~2831, 2833~2834, 2836~2837, 2839~2840, 2842~2843, 2845~2846, 2848~2849, 2851~2852, 2854~2855, 2857~2858, 2860~2861, 2863~2864, 2866~2867, 2869~2870, 2872~2873, 2875~2876, 2878~2879, 2881~2882, 2884~2885, 2887~2888, 2890~2891, 2893~2894, 2896~2897, 2899~2900, 2902~2903, 2905~2906, 2908~2909, 2911~2912, 2914~2915, 2917~2918, 2920~2921, 2923~2924, 2926~2927, 2929~2930, 2932~2933, 2935~2936, 2938~2939, 2941~2942, 2944~2945, 2947~2948, 2950~2951, 2953~2954, 2956~2957, 2959~2960, 2962~2963, 2965~2966, 2968~2969, 2971~2972, 2974~2975, 2977~2978, 2980~2981, 2983~2984, 2986~2987, 2989~2990, 2992~2993, 2995~2996, 2998~2999, 3001~3002, 3004~3005, 3007~3008, 3010~3011, 3013~3014, 3016~3017, 3019~3020, 3022~3023, 3025~3026, 3028~3029, 3031~3032, 3034~3035, 3037~3038, 3040~3041, 3043~3044, 3046~3047, 3049~3050, 3052~3053, 3055~3056, 3058~3059, 3061~3062, 3064~3065, 3067~3068, 3070~3071, 3073~3074, 3076~3077, 3079~3080, 3082~3083, 3085~3086, 3088~3089, 3091~3092, 3094~3095, 3097~3098, 3100~3101, 3103~3104, 3106~3107, 3109~3110, 3112~3113, 3115~3116, 3118~3119, 3121~3122, 3124~3125, 3127~3128, 3130~3131, 3133~3134, 3136~3137, 3139~3140, 3142~3143, 3145~3146, 3148~3149, 3151~3152, 3154~3155, 3157~3158, 3160~3161, 3163~3164, 3166~3167, 3169~3170, 3172~3173, 3175~3176, 3178~3179, 3181~3182, 3184~3185, 3187~3